

자료제공 : 2025. 6. 2.(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정원도시국 조경과

조경과장	유혜미	02-2133-2100
------	-----	--------------

정원정책팀장	차윤정	02-2133-2109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누리집	festival.seoul.go.kr/garden	
-----	-----------------------------	--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일만에 111만 명 다녀가...2년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 22일(목) 개막 이후 120만명 기록...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밀리언셀러 달성
- 작가부터 기업·기관, 지자체·자치구, 학생·시민·외국인 등 111개 정원 선보여
- 10.20.(월)까지 최장기간 개최...계절별 정원, 정원마켓, 프로그램, 연계 행사 등 풍성
- 시 “계절마다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 경험하고 행복감 얻어가시길”

지난 22일(목) 보라매공원에서 막을 올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행사 10일 차인 31일(토)까지 111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행사 5일 만에 102만 명이 다녀갔던 것에 이어 올해에도 단기간 내 100만 관람객을 달성하며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 개막 후 첫 주말인 24~25일 이틀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고, 행사 11일 차인 6.1.(일)까지 누적 관람객 1,247,286 명이 다녀갔다.

역대 최대인 12만 평 규모 부지(400,000㎡)에 마련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 기업·기

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111개의 정원과 다양한 정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정원(작가정원) 뿐 아니라 학생·시민정원 등 시민이 조성과정에 직접 참여한 정원,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력과 상생을 핵심으로 한 기업·기관 참여정원, 타 지자체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이 참여해 특색있게 조성한 정원들도 주목할 만하다.
  
- 지난주 개막과 동시에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현장은 곳곳에서 사진 찍는 시민들과 각종 판매부스, 체험부스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또 SNS·블로그·유튜브 등에 행사장을 다녀간 시민들의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 “하나하나 독특하고 예뻐서 구경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20년을 다닌 공원이지만 정말 좋아졌다”, “가족 누구를 모시고 와도 만족할 정도로 잘 꾸며놓았다” 등 정원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인접상가들은 대기가 걸리고 재료소진, 지역경제 활기가 오르는 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 기대도 함께 이어졌다.
  
- 박람회는 오는 10. 20.(월)까지 이어진다. 폐막 전까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다른 행사와도 연계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계절별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있는 만큼, 누리집을 통해 세부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festival.seoul.go.kr/garden](http://festival.seoul.go.kr/garden))

- 정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원해설(도슨트) 프로그램이 한국어와 영어로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정원 체험 프로그램, ‘정원작은음악회’ 등 공연 등이 운영되고, ‘보라매 가든 캠핑’, ‘보라매 가든웨딩’ 등 특별한 정원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 이번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_메타몽 가든’은 6.22.(일)까지만 팝업 전시로 운영되고, 웰컴정원에 마련된 ‘해치하우스’ 및 ‘서울굿즈샵’은 6.22.(일) 이후에는 주말만 운영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제11차 BGCI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워크숍(6.12. 코엑스)’, ‘정원도시서울 국제심포지엄(10.17.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적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국제 학술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 지난번 박람회와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정원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여유를 주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매력적인 복합 소비 공간으로 조성해 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하고 있다.
  - 행사장 내에선 정원마켓과 푸드트럭, 도농상생 ‘서로장터’, 장애인 생산품을 소개·판매하는 ‘행복장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는 ‘플리마켓’ 등을 운영해 활기를 더하고, 스탬프 투어 인증 시 할인 이벤트를 통해 박람회를 찾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에 이어질 수 있게 한다.
  - 시는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서울 서남권에 수준 높은 ‘시민대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다음 개최지로는 ‘서울숲’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권역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이어가며 정원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정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다는 서울시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은 물론 그 이후로도 계절마다 색과 모습이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정원이 주는 일상 속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진



개막식 전경



정원작은음악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경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



정원도시 서울 2주년 토크콘서트



메타몽 정원 관람 대기 시민들



푸드트럭 이용시민



가든마켓 전경



관광재단 인바운드 여행사 투어



서로장터 운영(정선군)



공군 VR 체험 프로그램



정원도슨트 투어